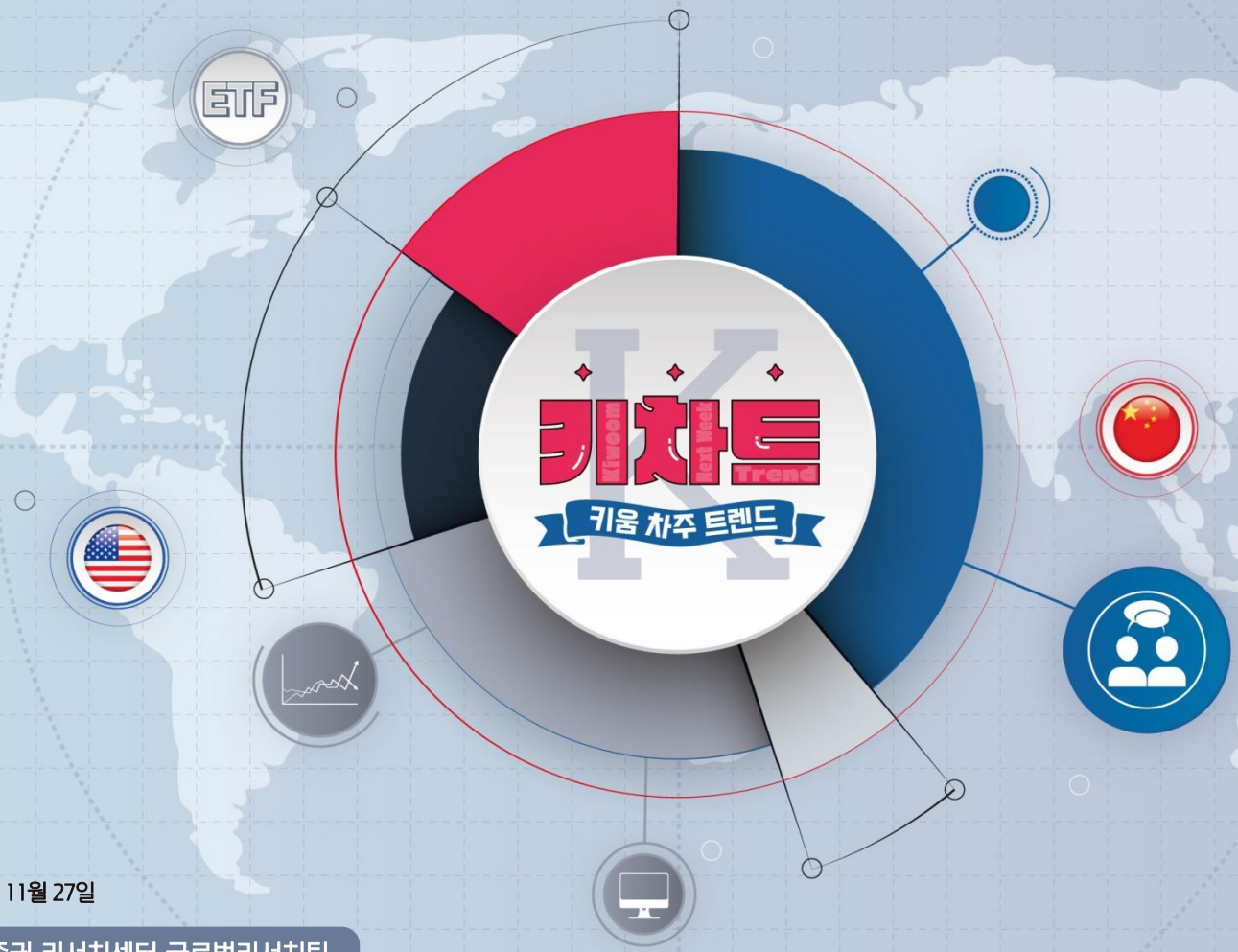
GLOBAL RESEARCH

Kiwoom Next Week Trend



| 2026년 11월 27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키움증권

11월 4주차 주요 트렌드 이벤트



금주 트렌드

美: 금주 미 증시는 젠슨 황 CEO의 엔비디아 복귀로 급반등했으나, 이후 AI 수익성·신용 우려 재부각되며 상승분 일부 반납 (S&P500 +3.9%, 나스닥 +4.3%). 23일 엔비디아가 31.5% 폭등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 급등. HPE AI 서버 마진 하락 전망, 오라클/코어위브 CDS 급등에 반도체 중심 매물 출회. 301조 추가 관세 추진과 예상을 웃돈 근원 PCE도 부담. 반면 소비심리 급반등에 소비·헬스케어로 순환매 유입

中: 금주 중화권 증시는 美 반도체주 급락과 USTR 신규 관세안으로 주 중반 급락했으나, 주후반 국무원의 증시 안정 대책 기대로 반등. 업종별로는 국산 AI 연산, 반도체, 로봇 등 기술주중심 반등. 은행, 석탄 등 고배당 업종 상대 약세

ETF: 금주 증시는 엔비디아를 둘러싼 변동성에도 경기민감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S&P 500 +3.9%, 목요일 추수감사절 휴장). 젠슨 황 CEO 복귀로 월요일 엔비디아가 31% 급등했으나, 화·수요일 반도체 차익실현과 근원 PCE 예상치 상회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 ETF 시장에서는 앤트로픽 상장 이후 ARK ETF 자금이 유출된 반면 주요 지수·중기 국채 ETF에 자금 유입되는 흐름. 앤트로픽 레버리지·인버스 등 관련 ETF 신규 출시는 지속



차주 트렌드

美: 차주는 AI 이벤트가 몰린 한 주. 엔비디아 GTC(1일 젠슨 황 기조연설)와 AWS re:Invent, 마벨 실적이 AI 수요를 재확인하면 낙폭 컸던 반도체 중심 반등 시도 예상. 다만 3일 젠슨 황 상원 청문회, AI 신용위험, 엔비디아의 동남아 AI 서버 선적 중단 보도 등은 반등 폭을 제한할 변수. 금리는 연준 블랙아웃 속 4일 고용지표가 12월 FOMC 50bp 인상 논쟁의 분수령. 연말 소비 기대에 업종 차별화 장세 지속될 전망

中: 차주 중화권 증시는 국무원이 주문한 '국가대표팀'의 증시 안정 역할 강화와 평준기금 관련 후속 조치에 주목할 전망. 한편 30일 발표되는 11월 국가통계국 PMI도 확인 필요. 美 USTR의 추가 관세안은 부담이나, 당국의 증시 부양 의지가 확인되며 투자심리는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

ETF: 차주 12월 FOMC(9일)를 앞두고 고용지표와 AI 실적에 따라 방향성을 탐색할 전망. 이외에는 마벨(1일)·세일즈포스(2일) 실적으로 AI 반도체·소프트웨어 수요를 점검할 예정. 옥타(1일) 실적과 AWS re:Invent(11월 30일~12월 4일)를 계기로 AI 확산에 따른 사이버보안 수요도 부각될 가능성. 다만 엔비디아 관련 이슈와 USTR 추가 관세안, 중동발 유가 변동성은 부담 요인. 지수의 일방적 상승보다는 AI·보안·경기민감주 간 순환매 예상

미국 트렌드

- **젠슨 황 복귀, 반도체 급등 후 반락:** 엔비디아 이사회가 젠슨 황의 CEO 복귀를 만장일치로 승인하며 23일 주가는 31.5% 폭등, 반도체 지수도 14% 급등. 공매도 환매수와 옵션 헤지 매수가 상승을 키웠지만, 12월 3일 상원 청문회와 S&P의 신용등급 하향 검토 등 부담이 남아 이후 이틀간 9.5% 반락
- **AI 기업 신용위험 확대:** 오라클 CDS가 사상 최고(356bp), 소프트뱅크가 4년 만의 최고(501bp)로 치솟으며 AI 기업 자금조달 불안 확대. 은행권 동남아 데이터센터 대출 점검까지 겹치며 나스닥은 장중 4.6% 급락. 다만 코어위브의 메타 계약 기반 45억 달러 대출 수요 확보에 낙폭 대부분 만회

중국 트렌드

- **브이넷 그룹 3Q26 실적 리뷰:** 매출 30억위안(YoY +15%), 조정 EBITDA 9억 위안(YoY +22%)으로 예상치 부합. 중국 주요 CSP 수요에 힘입어 Wholesale IDC 매출이 12 억위안(YoY +28%) 기록
- **알리바바 FY2Q27 실적 리뷰:** 매출 2,715 억위안(YoY +10%), 조정 EBITA 326 억위안(+260%)으로 이익이 예상치 상회. 퀵커머스 적자 축소 및 클라우드 수익성 개선에 기인
- **PONY AI 3Q26 실적 리뷰:** 매출 4,457만달러(YoY +75%), Non-GAAP 영업손실은 5,829 만달러(YoY 적자 지속) 기록. 로보택시 매출은 1,780 만달러(YoY +165%)로 전체 매출의 40% 차지

ETF 트렌드

- 금주 증시는 엔비디아발 변동성과 서버 기업의 마진·AI 신용 우려에도 경기민감주 강세와 ETF 자금 유입에 힘입어 소폭 상승
- 차주는 고용지표와 AI·사이버보안 실적을 확인하는 가운데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및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
- 물동량 증가에 따른 운송 업황 개선과 금리 인상기 비용 전가가 가능한 방어력에 주목해, 철도·물류·항공 등 미국 운송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 'IYT' 소개

12월 1주차 주요 트렌드 캘린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9	30	1	2	3	4	5
일정	11월 시카고 PMI 11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10월 소매판매 11월 잠정 CPI 10월 산업생산 10월 소매판매 11월 국가통계국 제조·비제조 PMI 10월 소매판매 10월 산업생산	10월 노동부 JOLTs 10월 건설지출 11월 S&P Global 제조업 PMI 11월 ISM 제조업 PMI 11월 S&P Global 제조업 PMI 11월 잠정 CPI 11월 Ratingdog 제조업 PMI 11월 S&P Global 제조업 PMI 11월 무역수지	11월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10월 실업률 11월 소비자 태도지수 11월 CPI	10월 공장수주 11월 S&P Global 서비스업·종합 PMI 11월 ISM 서비스업 PMI 10월 PPI 11월 S&P Global 서비스업·종합 PMI 11월 S&P Global 서비스업·종합 PMI 11월 Ratingdog 서비스업 PMI 11월 S&P Global 서비스업 PMI	11월 고용보고서 12월 잠정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평가·심리지수 12월 잠정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10월 소매판매	
실적	루브릭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	**마벨 테크놀로지** **크리도 테크놀로지** **그룹 홀딩** 옥타 넷앱 몽고DB 코파트 깃랩 박스	**세일즈포스** **스노우플레이크** 파이브 빌로우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시그넷 주얼러스 뱅크 오브 몬트리올 뱅크 오브 노바스코샤	**달러 제너럴**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울타 뷰티** **크로거** 비바 시스템즈 삼사라 도큐사인 센티넬원 유아이패스 아르간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	내셔널 뱅크 오브 캐나다	

리제네론(REGN): 이익은 레벨업, 밸류는 아직 제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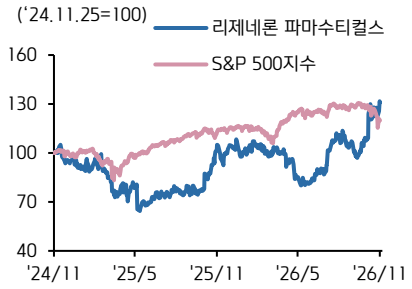
현재주가 (11/25)	USD 981.87

Stock Data

산업분류	헬스케어
세부업종	생명공학
거래소	NASDAQ GS
상대지수	SPX
벤치마크 현재주가	7182.78
시가총액(mln)	101572.3493
유통주식수(mln)	101.6307
52주 최고	991.83
52주 최저	591.52
일평균 거래량	812,896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Y
절대	27.2	20.3	56.4	25.1
S&P 500	4.9	-7.0	-4.5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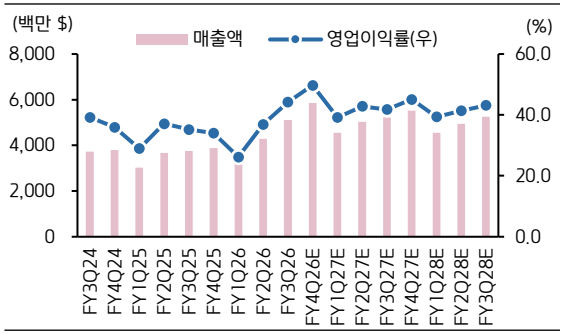


▶ **[분기 실적]** 3Q26 매출액 $5.12B(+36% YoY), 영업이익 $2.05B(+99% YoY), 조정 EPS $20.07(+70% YoY)로 컨센서스($16.08) 25% 상회. 듀피젠트 매출 $6.54B(+35%)로 사노피 협업수익이 $2.72B(+68%)로 급증했고, 아일리아 HD $699M(+62%)·릿타요 $550M(+51%)도 사상 최대. 제품 조정 총이익률 가이던스는 84~85%에서 약 86%로 상향

▶ **[투자포인트 1] 듀피젠트 이익 몫의 구조적 확대:** 이익 몫에서 차감해 갚던 사노피 개발비 잔액을 2Q26에 모두 상환해 3Q부터 차감이 사라짐. 매출의 53%인 사노피 협업수익이 듀피젠트 성장을 그대로 반영하기 시작했고 12M Fwd EPS는 1개월간 15% 상향. 차세대 장기지속형 항체 4종으로 사노피 협력을 넓혀(선급금 $1.0B) 듀피젠트 이후 공백 우려도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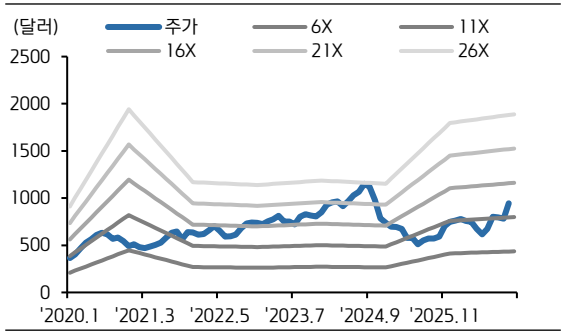
▶ **[투자포인트 2] 아일리아 바닥 통과, 남은 밸류 할인:** 바이오시밀러·바비스모 경쟁에 2mg은 -41%였지만 HD 전환으로 미국 아일리아 합산 감소폭은 1Q25 -26%에서 -1%로 축소. 올해 신약 3종(난청·희귀 골질환·중증근무력증) 승인, 내년 2월 림프종 신약 FDA 결정 대기. 그럼에도 12M Fwd PER은 13.7배로 1년 중앙값에 머물러 대형 바이오 피어(16~19배) 대비 할인

REGN 분기 실적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REGN 12M FWD PER 밴드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Company Earnings & Valuation

(백만 USD)	FY24	FY25	FY26E	FY27E
매출액	14,202	14,343	18,827	20,382
영업이익	5,213	4,884	8,008	8,403
영업이익률(%)	36.7	34.1	42.5	41.2
순이익	5,319	4,888	7,364	7,680
EPS(USD)	45.62	44.31	69.08	72.65
PER(배)	18.2	22.6	14.2	13.5
PBR(배)	2.7	3.2	2.9	2.6
ROE(%)	16.0	15.0	20.6	17.7
배당수익률(%)	0.4	0.4	0.4	0.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11-25 컨센서스 기준, GAAP 기준

샤오미(1810.HK): 실적 우려 완화, 성장은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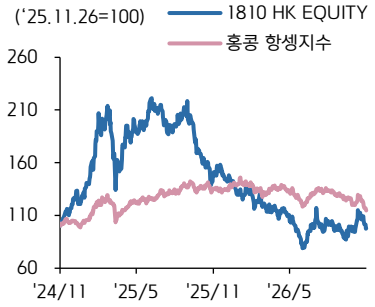
현재주가 (11/26)	HKD 26.6

Stock Data

산업분류	기술 하드웨어 & 반도체
세부업종	통신장비
거래소	Hong Kong
상대지수	HSI
벤치마크 현재주가	22,226.88
시가총액(mln)	708,900.2
유통주식수(mln)	21321.6
52주 최고	43.64
52주 최저	21.30
일평균 거래량	145,145,342.1

Performance & Price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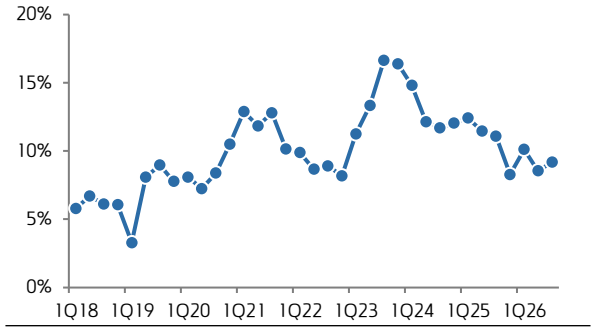
주가수익률 (%)	YTD	1M	6M	1Y
절대	-29.9	7.3	-3.0	-33.0
홍콩항셍	-11.4	-1.4	-10.3	-12.5



▶ **3Q26 실적 예상치 부합. 스마트폰이 전기차 사업 부진 상쇄:** 3Q26 매출 1,072억위안(YoY -5%), Non-IFRS 순이익 49억위안(YoY -57%) 기록. 스마트폰 매출은 456억위안(YoY -1%), GPM은 9%(QoQ +1%p)로 이익이 예상치 상회. 출하량 감소세(YoY -29%)가 지속됐으나, ASP 상승(YoY +40%)이 이를 상쇄. IoT 매출은 272억위안(YoY -1%)으로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이구환신 정책에 따른 높은 기저 부담이 완화되며 역성장 폭 축소. 신사업 매출은 239억위안(YoY -18%), GPM은 19.2%로 예상치 하회. 내수 부진 및 신차 출시 전 판매 공백으로 판매량(YoY -7%) 감소했으며, 믹스 악화되며 ASP(YoY -14%)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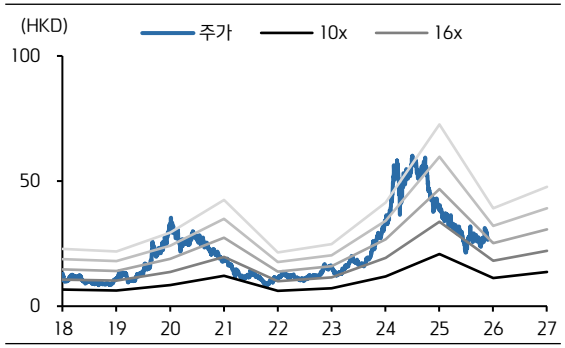
▶ **실적 바닥 통과 기대감 확대. 성장성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샤오미의 실적 바닥 통과에 대한 기대 확대. 3분기 스마트폰 및 IoT 사업은 메모리 가격 상승에도 수익성 방어 능력을 입증했으며, 이구환신 정책에 따른 높은 기저 부담도 완화되면서 2027년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이전 대비 높아짐. 다만 스마트폰·IoT 및 전기차 모두 중국 내 수요가 부진한 만큼, 수익성 방어와 별개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 현재 주가는 2027년 예상 실적 기준 스마트폰·IoT 사업 PER 20배, 전기차 사업 PSR 0.5배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고, 낙폭 과대 인식 속 탄력적인 주가 반등은 가능하나,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수요 개선 시그널 확인이 필요할 전망

샤오미 스마트폰 사업 GPM



자료: 샤오미, 키움증권 리서치

샤오미 12M FWD PER 밴드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Company Earnings & Valuation

(백만)	FY24	FY25	FY26E	FY27E
매출액	365,906	457,287	434,758	504,153
영업이익	24,503	47,901	26,433	29,644
OPM(%)	7	10	6	6
순이익	23,658	41,643	23,613	29,423
EPS(CNY)	0.9	1.6	0.9	1.2
PER(배)	34.1	21.8	23.9	19.5
PBR(배)	4.3	3.4	2.0	1.8
ROE(%)	13.4	18.3	8.4	9.5
배당수익률(%)	-	-	-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11-26 컨센서스 기준

iShares U.S. Transportation ETF (IYT.US): AI가 주춤해도 화물은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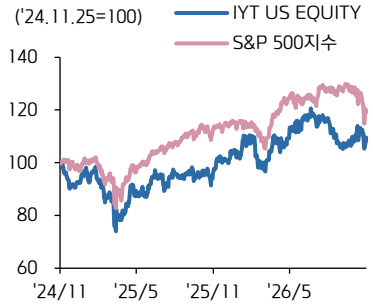
현재주가 (11/25)	USD 81.77

Stock Data

자산군 분류	주식
세부전략	美 운송
거래소	Cboe BZX
상대지수	SPX
벤치마크 현재주가	7182.78
순자산총액(백만 달러)	1,991.1
유통주식수(백만)	24.4
52주 최고	90.06
52주 최저	72.04
일평균 거래량	866,679.3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Y
절대	9.7	-0.5	-3.4	12.9
S&P 500	4.9	-7.0	-4.5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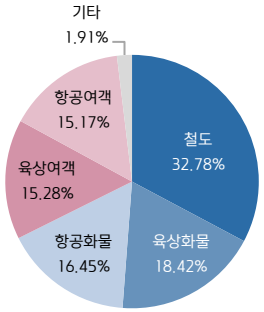
- **개요:** 'IYT'는 미국 운송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 S&P Transportation Select Industry FMC Capped Index를 추종하며, 25일(현지시간) 기준 철도(32.8%)·육상화물(18.4%)·항공화물 및 물류(16.5%) 등 44개 종목에 투자. Union Pacific·Uber·CSX·UPS·Delta Air Lines 등 상위 5개 종목 비중이 52%로, 철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물류·항공 기업에 함께 투자
- **투자포인트 1:** 높은 디젤 가격과 트럭 수급 부족으로 화물이 철도로 이동하면서 철도 업황 개선 부각. 美 철도협회(AAR)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기준 주간 철도 물동량은 전년 대비 4.7%, 복합운송은 8.3% 증가. Union Pacific은 3분기 물동량이 6% 늘며 매출(72억 달러, +15%)과 순이익(21억 달러)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국내 복합운송은 5개 분기 연속 최대치를 경신. CSX도 '27년 운임 인상과 물량 확대를 목표로 제시해, Union Pacific·CSX·Norfolk Southern을 32.7% 편입한 IYT 수혜 기대
- **투자포인트 2:** 금리 인상과 AI주 조정이 겹친 국면에서 과점 구조의 철도주 방어력 부각. 12월 FOMC(8~9일) 인상 확률이 95%를 웃도는 가운데, 철도는 운임 인상과 유류할증료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어 이익 방어에 유리. 25일(현지시간) S&P 500이 0.25% 하락할 때 산업재 섹터는 0.8% 상승하는 등 전통 업종으로의 순환매도 진행 중. 디젤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해 트럭·항공 기업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점도 긍정적. Union Pacific의 Norfolk Southern 인수 심사는 '27년 하반기 결론이 예상돼 단기 변수는 제한적

'IYT' Top 10 Holdings 비중

티커	종목 명	비중(%)
UNP	Union Pacific	18.37
UBER	Uber Technologies	14.05
CSX	CSX	9.82
UPS	United Parcel Service Inc Class B	5.04
DAL	Delta Air Lines	4.72
NSC	Norfolk Southern Corp	4.53
FDX	FedEx Corp	4.48
UAL	United Airlines Holdings	4.38
ODFL	Old Dominion Freight Line	4.31
EXPD	Expeditors International of Washington	3.50

자료: iShares,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11-25 기준

'IYT' 세부 영역별 비중



자료: iShares,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11-25 기준

Company Earnings & Valuation

(백만 USD)	FY24	FY25	FY26E	FY27E
매출액	5,068.0	5,189.5	5,494.0	6,163.4
EBIT	381.8	422.3	475.0	636.2
EBIT 이익률	7.5	8.1	8.6	10.3
순이익	257.0	363.8	339.2	441.9
PER(배)	22.5	22.8	22.9	17.3
PBR(배)	4.2	4.2	4.2	3.5
ROE(%)	17.7	22.6	16.4	20.3
배당수익률(%)	1.6	1.5	1.2	1.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11-25 기준

GLOBAL RESEARCH

Kiwoom Next Week Trend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 Global ETF 김진영
- China Strategy 박주영
- US Strategy 김승혁
- US Equity 박기현
- RA 조호준
- RA 한유진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26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언급된 기업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